

중간을 위한 노래: 상승의 노래에 대한 연구

시편 133편

2024년 10월 6일 - B4

개정 날짜: 10/4/24

시리즈 요약: 히브리 사람들은 매년 세 번씩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지대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온 땅의 기쁨(시편 48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재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 듣고, 배우고, 노래합니다. 시편 중간에 있는 노래책에는 15곡(시편 120-134편)이 들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리즈 논문: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여정에 대한 지침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 공간을 어떻게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제자도의 일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메시지 논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갔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주장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천과 공동체를 통해 예수의 길로 형성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핵심구절: 예레미야 12:5/시편 133편

다른 요소: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험 중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천천히 해야 할 일을 빨리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 빌로다스

리소스 :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유진 피터슨. Sacred Rhythms, 루스 헤일리 바튼. Deeply Formed Life, 리치 빌로다스 .

연결 -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제를 묘사하거나,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공통점을 찾는 것 -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전체 시리즈에 연결...상승의 시편...

시리즈 요약: 히브리인들은 매년 세 번씩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지대의 삶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온 땅의 기쁨(시편 48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이 시편 모음(시편 120~134편)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재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노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합니다. 시편 중간에 있는 노래책에는 15곡(시편 120-134)이 들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고전적인 작품에서 순례자의 은유를 사용하여 예수와 같아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례를 다녀온 사람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그랜드 캐년에 ...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여행하며...그분의 현존을 추구하며...하느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느님과 같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의 은유를 공유해 주세요...그분의 발자취를 계속 바라보는 것...우리는 항상 이렇게(고개를 숙인 채로) 살 수는 없지만,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우리의 삶을 주인에게 맞춰 재조정하고 재정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규칙적인 리듬일까요?

시리즈 논문: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여정에 대한 지침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

공간을 어떻게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제자도의 일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합시다...

조명 -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논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텍스트에서 나온 2-3가지 요점은 무엇인가?
떠오르는 뒷받침 성경은 무엇인가? -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것은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위로 흘러내리고 아론의 수영 위로 흘러내리고 그의 옷깃 위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구나. 마치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과 같구나.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내리시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133:1-3 NIV**

이 승천의 노래는 순례자에게 공동체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이야기에서 봅니다.

- 아담과 이브 -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예수의 제자들은 랍비의 먼지투성이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일깨워 줍니다.
-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자주 커뮤니티를 피합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제 성격 때문입니다. 저는 극도로 내성적이고, 에니어그램에서 5점입니다(성격 프로필을 알고 있다면).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랜드 캐년까지 혼자 갔습니다. 그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형제 자매라는 가족적 용어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이 되라는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있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관계가 종종 두 가지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등과 경쟁

정신과 의사들이 형제 경쟁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가 두 명 있고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제 큰 형은 저보다 3살 많고, 자매는 1.5살 많고, 남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갈등과 경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지 고민 중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친구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차를 몰고 가셨을 때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셨던 일화나, 음식이 다 없어지기 전에 두 번째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음식을 먹었던 일화...

하지만 관계 속의 갈등과 경쟁은 당신과 나보다 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카인과 아벨(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형제)은 살인으로 끝났고, 요셉의 질투심 많은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으며, 심지어 예수의 형들조차도 그를 당장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은유는 원래 우리 가족의 붕괴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괜찮아요. 저는 이 종교적인 일을 저 혼자 할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 순례할 거예요."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하며 예수님과 더 비슷해지려고 노력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형제 자매가 잘 지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인가!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이것은 우리 세상이 되기 위해 애쓰는 무언가, 즉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가지고, 연결되고, 헌신하는 존재가 되라는 반문화적 초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133편의 두 가지 시적 이미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를 장려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값비싼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흘러 내리고, 그의 제사장 옷깃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시편 133:2-3, MSG).

이거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아론의 수염. 헤르몬 산의 이슬?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의 표징이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은 머리에서 흘러나와 우리 모두를 덮는 값비싼 기름과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묘사했듯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군중 속에서 서로 밀치는 사람들의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한 표면과 대조되는 따뜻함과 편안함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또한 우리 각자를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로 볼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나 갈등을 겪는 사람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베드로가 신의 순례자들을 왕의 제사장으로 묘사한 것처럼 봅니다... 신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헤이포드가 성직 안수식 때 나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는 여정의 일부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덮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틈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일기를 만들고 소그룹을 추가하거나 이웃을 추가하거나 매주 일요일에 새로운 사람 옆에 앉아 그들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서로를 덮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은 헤르몬 산을 따라 흐르는 아침 이슬과 같다고 말합니다. 피터슨이 쓴 것처럼, "알파인 이슬은 아침의 신선함, 다산의 느낌, 성장에 대한 깨끗한 기대감을 전달합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한 즐거운 기대입니다. "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행 중이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다.

때 신앙의 공동체로서 번성합니다 . 저는 오늘 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대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쁜 날이 있을 때, 제 아내나 지역 사회가 그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저를 판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던 다른 많은 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오늘은 잠재적인 아름다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몇 안 되는 나쁜 날들에 대해 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라벨을 붙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과정에서 동료 순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정에서... 신은 당신이나 나, 또는 당신의 피부 아래 정말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끝나지 않았습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증가하는 양극화를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이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친절, 자비를 베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거나 어쩌면 우리는 길에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 - 기억에 남게 만드십시오 - 왜 그래야 합니까? (메시지를 "고착"시킬 창의적인 요소, 메시지 비전을 재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유형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때 - 형제 자매로서 연합하여 사는 순례자 집단 - 갈등과 경쟁이 그 공동체의 주요 표식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 서로를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는...

그분의 임재가 거기에 거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우리 공동체 전체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조금씩 천국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지역 사회 모두에게 달콤한 향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매력적인 지역 사회로 봅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믿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B4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관계, 가족, 자녀, 손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